

2022

학예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유초운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 유초운을 대신 전해 DREAMY.

DREAMY SCHOOL · 2022

## 빛음을 마치며

빛음이 끝난다니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언어 빛음, 내 몸 빛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 정말 많았고, 4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주신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멋있었고 고마웠다. 빛음 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과, 선배들과, 선생님들과 하나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행복했고 앞으로 어떤 배움과 성장이 있을지 기대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드리미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 나를 소개합니다 ABOUT ME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운입니다.  
저는 4기생으로 2022년도에 드리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 꿈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드리미 학교에서 준비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apter 1

# 빛음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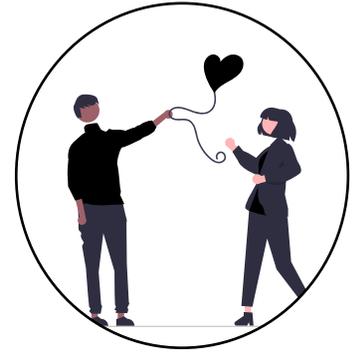
사명 선언문  
신앙 에세이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언어 빛음 소감문  
정의 에세이  
절제하는 삶의 원칙

# 사명 선언문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책임지는 유치원 교사

아이들과 기쁨, 소망을 나누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받침대가 되어주는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아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누구보다 더욱 사랑하고 배우자를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아내가 되겠다.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시민의 편리와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공공디자이너

작품에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 시민들의 편의성과 공공의 이익, 편리와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공공디자이너가 되겠다.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는 놀이 치료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치료해 평화로운 심리상태를 만들어 주는 놀이 치료사가 되겠다.

## 유치원 교사

1. 유아교육에 대한 책을 일주일에 2번 자율활동 시간에 읽는다.
2. 2022년 안에 동화책을 50권 읽는다.
3. 일주일에 3번 스테디 바이블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한다.
4. 2023년 안에 검정고시에 합격한다.

## 아내

1. 매일 칭찬을 3가지 씩 적는다.
2.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3. 배우자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관련 자료를 2주에 한 번 보고 듣고 읽는다.
4.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2번 갖는다.

# ACTION PLAN

## 그리스도인

1.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와닿은 말씀을 기록하며 묵상한다.
2.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다. (기도, 찬양, 말씀 등)
3. 세상 노래 보다는 찬양을 들으려 노력하고 분별해서 듣는다.
4. 매일 성경 일기 or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작성한다.

## 공공 디자이너

1. 디자인 연습과 그림 그리는 연습을 일주일에 2번 한다.
2. 일상의 불편함들을 찾아 보고 기록해 본다.
3. 공공 디자인 작품을 많이 찾아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기록한다.
4. 공공 디자인에 대한 학습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

## 놀이 치료사

1. 주말마다 아동 심리에 대해 학습한다.
2. 주말마다 놀이 치료에 대해 학습한다.
3. 일주일에 3번 힘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 1

## 신앙 에세이

Faith Essay 04. 22

하나님은 누구일까? 나에게 하나님은 17년 동안 너무 당연한 존재였고 내 삶의 일부 아닌 일부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어렵고 이런 질문을 생각한 적도 없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대로 만들어졌으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를 생각해 봤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한다. 나는 언젠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에 떳떳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렵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다. 성경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예전에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길임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항상 믿고 생각해야겠다.



나는 드리미 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 드리미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다 다른 것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찾지 않았다. 다른 것을 할 에너지는 넘쳐 나는데 하나님께 쓰는 에너지는 턱도 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많은 강의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착각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다. 내 안의 많은 죄들이 다 느껴졌으며 내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기다려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셨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고 왜 나를 만나 주지 않냐며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를 했다. 내 신앙은 이기적이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기다리셨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끝도 없는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개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문제들을 내 아픔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해결해 주셨고 느끼게해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나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고난주간에 느꼈다.

세족식 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안아주며 기도를 해줬는데 세족식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느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인가?’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족식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드리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안에 있던 상처들과 걱정, 고민들이 그 시간을 통해 치유됐고 위로됐다.

나는 드리미 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 드리미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다 다른 것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찾지 않았다. 다른 것을 할 에너지는 넘쳐 나는데 하나님께 쓰는 에너지는 턱도 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많은 강의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착각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다. 내 안의 많은 죄들이 다 느껴졌으며 내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기다려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셨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고 왜 나를 만나 주지 않냐며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를 했다. 내 신앙은 이기적이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기다리셨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끝도 없는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개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문제들을 내 아픔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해결해 주셨고 느끼게해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나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고난주간에 느꼈다.

세족식 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안아주며 기도를 해줬는데 세족식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느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인가?’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족식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드리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안에 있던 상처들과 걱정, 고민들이 그 시간을 통해 치유됐고 위로됐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고 생각한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삶에 오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죄를 정말 많이 짓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논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 맞고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저 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드리미 학교에 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느끼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야겠다.

가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성장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힘도 없지만 앞으로 나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 2

## 타임 엔지니어링 감상문

Time engineering 03.06~04.24

### <차원>

삶을 살아가면서 효율적이고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며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지 인생을 잘 컨트롤 할 수 있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태초(시간)에 하나님이 천지(공간)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에게 5가지의 차원이 존재한다. 먼저 0차원은 위치이다. 위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한다. 두 번째는 1차원 선이다. 나와 친구외에는 신경쓰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집착으로 인해 내 주변을 살필 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랑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2차원이다. 2차원은 면이고 같은 또래 세대나 가족외에는 신경쓰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1차원 보다는 관계가 조금 더 넓어 졌지만 같은 또래나 가족이 아닌 다른 선, 후배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3차원이다. 3차원은 공간이며 자신의 레벨과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단계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사람을 뜻한다. 3차원에 위치한 사람은 나와 내 또래 세대들, 가족 말고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불어 나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까지 생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4차원이다. (+시간) 4차원은 나보다 더 많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시간 여행)이고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재 미래에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고 준비

하는 사람이다. 4차원에 위치하여 미래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종합적으로 채워나간다면 현재를 행동한다면 미래에서는 그 부분들이 충족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시간의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현재-미래에서 생각하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차원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처음과 끝이 붙어있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5차원이다. 또한 하나님은 5차원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며 ‘영원’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 <시간>

시간이란 과거에서 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다. 공간이 휘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에서 한 점 만나는데 우리 몸은 3차원에 지배를 받지만 생각은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차원을 넘을 수 있다.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일반적 의미의 시간이고 가만히 있어도 단순히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다. 즉,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개념이다. (일하는 것)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시간이다. (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없으며 사건의 순서라는 것을 머리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 <시간의 초월성>

위에 내용에 나왔던 개념인데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현재는 바꾸기 어렵고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또한 미래로 끊임없이 가야하며 미래를 그려야한다. 동물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거-현재-미래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속도가 무한대가 되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생각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 또한 사건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기에 사건을 관리해야하고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한다. 아담 이후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자기 보기에 좋은 것) 선과 악이 자신의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길 바라신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하며 나한테가 아닌 남한테 잘해주고 배려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하고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남의 발만 씻겨주면 된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아무도 자신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건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된다.

### <시간의 압축성>

사건을 선택하는 것은 즉슨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사건을 얼마나 빈번하게 일으킬 것인가?’ 사건을 얼마나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꿈을 이루기 위한 성공, 실패 여부를 결정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위해서 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언어 공부 등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사건의 발생을 압축시켜 시간을 압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폭발력이 나온다. 세상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루 할 일 맨 첫 번째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일으키도록 할거냐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한다.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가정을 하고 그 시간들을 압축시켜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건을 압축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가 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안 될 때도 쉬지않고 살아가야한다. 우리는 번아웃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애초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한다. 쉴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

### <시간의 복제성>

복제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복제시켜서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고 점점 뻗어나가면서복음을 널리 전파하셨다. 이런 복제성을 가져야지 전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복제원리를 아는 것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지혜가 된다.

하나님으로 부터 계시를 받는 것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한다.

# 3

## 언어 빛음 소감문

language fashion 03.20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여서 높임법이 가장 발달한 언어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언어를 쓴다. 그래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나 어른들께 높임법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일상인데 웬지 모르게 욕이 정말 많이 발달해 있고 그만큼 쓰는 사람도 정말 많은 것 같다. SNS를 보면 욕이 진짜 많고 은어들도 진짜 많고 그것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그런 말들을 보면서 웃기다고 웃으며 재미로 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죄는 언어까지 침투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 이전의 언어와 죄 이후의 언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죄 이전의 언어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누구보다 선한데 죄 이후의 언어를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무슨 일이나 물어보시는데 그 때에 아담은 하와가 했으며 책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탓을 하는 말들을 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을 알자마자 말로 죄를 짓게 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에 은근히 죄악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드리미 학교에 와서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오기 전에 내가 사용했던 언어들 은 깨끗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슬프셨을 것 같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리미 학교에서 와서 언어 사용에 대해 많이 주의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서로서로 지적해 주고 도와주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냥 모두가 비속어나 은어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누가 나쁜 말을 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말이지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든다. 저번에 다른 곳으로 나갔을 때 학생들이 욕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저랬더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성이 됐다. 앞으로 깨끗한 언어 사용을 위해서 언어 사용에 관한 성경구절이 도움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해야겠다.

# 4

## 정의 에세이

Definition Essay 03.20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

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사전적 정의는 진리에 맞는 바른 도리이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변함없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의 정의를 알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기초양이라는 시간에 무엇인지 배웠다. 이 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내 도덕단계는 몇 단계일까?”

내가 어떤 도덕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 했을 때 4단계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보통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 4단계 개념과 비슷하게 어떤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지 고려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크롬북을 학습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른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나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4단계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 보면 1단계에서 3단계를 모두 거쳐서 4단계에 이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벌을 고려하고 잘못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나 보상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인식해서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도덕 기준은 딱 그정도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높은 단계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정해주지 않은 그 규칙의 틀을 넘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번에 4기 친구들과 교장선생님과 화단 돌을 줍고 낙엽을 치우는 일을 했는데 지나가다 봤을 때 화단이 어질러져 있고 돌이 있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것을 적합한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었다. 그 말씀을 새겨두고 높은 도덕기준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인애와 진리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알아보았다. 시편, 요한복음, 마가복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배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애와 진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애는 사랑이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부드러운 것이다. 반면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것이다. 이 둘은 어떤 상황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애와 진리를 적당한 선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행해야한다.

내 삶에서 인애와 진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인애와 진리하면 엄마가 떠오르는데 날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을텐데 항상 인애로 품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다. 내가 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잘못된 적이 있었는데 엄마도 화가 많이 나시고 속상하셨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내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대처하셨던 것 같다.

처음에 몇 번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고 넘기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인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 덕분에 온몸으로 내 잘못을 느꼈고 그 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도 가끔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않게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

내가 생각했던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자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회였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 하게 나무를 깎고 자연을 파괴해서 지구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성경관점에서 생각했던 정의롭지 않은 부분은 산림파괴로 인한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식생활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서 인디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라고 생각했다. 산림파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동물들도 살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 까지 오게되고 차에서 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는 그런 일들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4월인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낮에는 날씨가 엄청 더워서 확실히 지구 온도가 많이 뜨거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3월에는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서 눈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생각은 하는데 실천하기에는 몸이 따라오지 않았다.

드리미 학교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종이컵을 쓰지 않고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니 일회용품을 쓰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손을 씻은 후 휴지를 쓰는게 항상 습관이었는데 옆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보니 그냥 자연건조를 시키거나 방에서는 수건을 쓸 수 있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샤워할 때 샴푸하면서 추우니까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샴푸칠 하는데 이제부터 물을 끄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린스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린스를 항상 안 하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야겠다.

# 5

## 절제하는 삶의 원칙

Moderation principle 04.25

우리 마음속의 무절제한 욕정보다 더 큰 장애와 괴로움이 있을까?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가치 없는 성향에 이끌리지 않으며, 올바른 이성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퀴나스) 중에서’

###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과식 하는 것 -수면 시간  
-돈, 자원 낭비 -미디어 조절 -시간 조절

### 빛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가치기초소양 ‘ 정의

### 절제하는 삶을 위한 나의 원칙

1.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매일 하루를 계획하는 계획표를 적는다.
2. 나와 더불어 친구도 함께 절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서로 피드백 해준다.
3.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는다.
4. 내 기준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절제한다.
5.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6

## 공동성결 서약문

vow holiness 04.14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 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 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드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유초운

## 공동성결 서약문

vow holiness 04.14

chapter 2

## 빛음 2단계

성결 에세이

정직 에세이

평화 에세이

빛음 2단계 소감문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 7

## 성결 에세이

holiness Essay 04.14

“성결은 내 삶의 기준이다”

성결이란 무엇일까? 내가 처음에 생각한 성결의 정의는 순결이라고 생각했다. 두 개의 단어가 어감도 비슷하고 성결안에 순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결이라고 생각했다. 성결의 성경적 정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고 다른 것과 섞이게 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성결은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결은 하나님과 백성의 약속이기도 하며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 성결을 잃기 쉬웠다. 성결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물론 나도 그렇다. 이 글에서는 성결한 삶과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왜 내 삶의 기준을 성결이라고 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성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성결하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쉽게, 흔히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결이 가장 필요한 부분중 하나인 하나님 주신 선물인 성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기지 않고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미디어 매체에서도 그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성 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드라마나 영화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장면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쉽게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성결하기 어렵다.

내 삶에서도 성결하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생각에 대해, 행동에 대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성결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역에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공예배는 잘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삶의 예배에서는 한 마디로, 내 생활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경배하거나 찬양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결하지 못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균것질이나 편식 많이 했던 부분이 성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거나 성형수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졌던 부분에서는 성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했던 부분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다보면 행동까지 이어져서 은근 피하고 티는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차별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성결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할까? 그리고 자신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 돼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다. 그 원인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기준이나 결정의 기준이나 판단할 때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과 기준이 ‘나’ 였기 때문이고, 사실 지금도 그런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주님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주인이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모든 초점이 나한테만 맞춰져있기에 내가 주인이고 삶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해서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내 몸이 망가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말이 더럽혀 지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하고 내 행동, 말, 생각,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몸은 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앞으로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내가 선불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에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불리 행동하면 안된다. 또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둘 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지키며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혹시나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받았던 미운 감정들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제 3자에게 발설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당사자에게 서운하거나 화났던 감정을 직접 말해서 다른 일로 더 커지지 않게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이 감정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 8

## 정직 에세이

Truthfulness Essay 06.28

하나님 먼저 제가 정직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정당한지 살피고 행하는 일이며 나의 관점이 바른 지 살피고 행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직에 대해 배우기 전에 정직을 그저 솔직한 것,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정직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저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죄를 넘어서기란, 정직하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직했을 때 저에게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행동, 말, 생각,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정직이 꼭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제가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선한 일을 행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 마음에 정직을 주시고 제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제 마음에 문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과거나 현재나 아직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리미 학교 오고 난 후와 오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지만 가치 기초소양 정직 수업을 듣고 달라진 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 달라진 점은 양심에 찌른다는 거? 그래도 전에는 자기 합리화라도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애써 무시했어요. 제가 정직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근데 지금은 많이 무겁고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제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와요. “그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요? 제 양심을 건드려 주시는 거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드리미 학교를 다니기 전에 였으면 마음이 덜 무겁고 양심도 덜 찢리고 대충대충 넘어갔을 텐데 편하게 살았을 텐데라고요. 진짜 나쁜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죄송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뭔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들었을 때 앓은뱅이가 참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앓은뱅이와 내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38년씩이나 다리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코람테오의 삶을 살아가려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것도 있고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코람테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바라는 것은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거지만 아직 많이 멀었기 때문에 코람테오 삶을 살면서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끼리 서로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

## 정직 에세이

Truthfulness Essay 06.28

랬기 때문에 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친구들끼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정직할 수 있도록 돕고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오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서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또한 노력하고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변화될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항상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정직 에세이

Truthfulness Essay 06.28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길승

♩ = 70

G D/F# Em D G D/F# Em C

오늘이 자 - 리에 모인 우-리 - 어린양예 - - 수 따라가는 - 무리

5 G/B Am Dsus4 D G D/F# Em D

- 되게 - 하소서 - 성령의 충 - 만한 임재 아-래 -

9 G D/F# Em C G/B Am Dsus4 D

어둡던 우 - 리 눈 밝아져서 - 주를 - 보게 - 하소서 -

13 G D Em C Am Bm C D

당신의 겸 - 손함 당신의 거 - 록함 당신의 정 - 직함 우리 에게 보 - 이사 -

17 G D Em C Am Bm C D

내안에 교 - 만함 내안에 천 - 박함 내안에 거 - 짓됨 모두 벗어 버 - 리고 -

21 G D/F# Em C G/B D G

어린양예 - - 수 닳아가는 - 무리 - 되게 - 하소서 -

# 9

## 평화 에세이

Peace Essay 07.10

### 평화는 사랑, 사랑은 평화

평화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 평화의 종류가 그렇게 많았나 신기하기도 했고 폭력의 종류도 많아서 신기했다. 평화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어야지 만들어 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도 꽤 많았던 것 같다. 드리미 학교의 철학도 사랑이 기반 되어있는데 많은 교육을 받고 신앙 생활도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정죄하기가 너무 쉽고 미워하기 너무 쉽고 판단하기 너무 쉽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

나에게 사랑이 없을 때 겪었던 일이다. 그 친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얘기였고 내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기도 했고 정죄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를 뼈뜰게 보고 미워했다. 그렇게 계속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미운 마음은 더 커졌고 화가 많이 났다.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함예배 설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다.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렸다.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보다는 이제는 아무 마음도 안 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했고 힘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친구에게 미안했다.

이제 그 친구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다행이 그 친구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많이 개선한 것 같아서 고마웠다. 서로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다시 대화하고 웃고 떠들면서 친해져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행동에 변화가 있던게 아닐까 무슨 바람이 들어서 바뀐건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줘서 고마웠다. 이제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그 친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기에 그 친구가 무슨 짓을 하든 화가 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충분히 화낼 상황이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고 그 친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마워 했다. 내가 그 상황에서 화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자랄 것이고 나는 그 친구를 정죄하게 되고 그 친구는 상처받고 이런 서로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넘긴게 참 감사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했던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의 따끔한 한 마디..?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다보면 미워하는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그리고 뒷담화 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 드리거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준다.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뜨끔한 것도 있고 마음에 평화를 준다.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드림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묻고 간구하고 말씀의 양식을 얻고 감사해야 한다. 또 정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한다.

드림 공동체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어린 아이에게 알려주는 평화 정의**  
‘평화는 달리기 시합에서 저도 기쁜거야.  
그리고 그 친구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거야.’

# 10

## 빛음 2단계 소감문

fashion 2step 07.06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나를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나를 떠올렸을 때 사실 연약한 부분만 보이고 단점만 보여서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건지 죄인이라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금방 지쳐버리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다. 친구들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고 싶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사람 같다. 그럼으로 나를 알기 시간에 나는 내가 닮고 싶은 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적었었는데 나랑은 정말 정반대였다. 생각해 보면 내가 적은 특징들은 세상에서나 먹힐 법한, 세상에서 좋아할 법한 것들 뿐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거 잘 해봤자 쓸데없는 것들인데 난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아직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칭찬사전을 하면서 서로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때 내용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은 “너는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 라고 했던 말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계속 세상만 바라봤을까, 왜 나를 봤을까 이제는 새로고침 할 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달렸지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어야한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탄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한다.

끊임없이 죄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또 결단력있고 할말을 제때제때 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그 사람이 옳은길로 가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데 옆에서 쭈뼛쭈뼛 되다가 바로잡아줄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쓴소리 하기를 어려워하는 나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어쨌든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 11

---

##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I learned' 07.08

나는 배웠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말의 깊이를, 행동의 깊이를

---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I learned' 07.08

chapter 3

# 3P 기초소양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문제 해결 프로젝트  
3P 창의활동 계획서

# 12

## 지역 연구 인물 프로젝트

Local Research People Project 06. 07

### 1. 교육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짜며 교육 과정안에 담긴 의미들은 무엇인가요?

-기본은 생활주제에 맞게 교육과정을 짭니다. 4월은 봄과 동식물, 자연에 대해서 5월은 가족(아버지날, 어린이날)에 대해서, 6월은 곤충에 대해서, 7,8월은 계절(여름, 여름철 안전,)에 대해서 9월은 추석에 대해서, 10,11월은 교통기관이나 우주에 관해서, 12은크리스마스에 관해서, 1월은 설날이나 색깔 모양에 관해서 2월은 졸업하고 수료, 초등학교 준비에 관해서, 3월은 유치원과 친구들에 관해서 교육을 합니다.

기본적인 주제는 교사가 매월 초에 계획하지만 아이들의 의견 반영을 많이 하고 놀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는 것에 따라 교육과정이 바뀜 아이들 중심으로)

### 2. 이곳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며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아이들이 배워가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보람 되고 (아이들의 학습지도)엄마로써, 같은 양육자 입장으로써, 양육자입장으로 생활지도에서 아이들의 문제나 행동들을 부모와 같이 해결해 가며 보람을 얻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자와 양육자 입장에서 보람을 많이 얻는 것 같고, 아이들이 주는 한 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고맙고 좋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정말 큼니다.

### 3.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원활한 소통의 역량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하는 수업이나 놀이가 있나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킨십인데 안아주거나 칭찬의 제스처, 무릎에 앉혀서 토닥이는 그런 스킨십을 하면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색해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저는 대그룹 수업지도 하는 것도 좋지만 1대1로 대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흥미에 맞게 아이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개별 특성에 맞게)

말을 먼저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하는 것을 같이 행동으로 한다거나 옆에서 놀이를 하면 먼저 말을 시키지 않아도 나중에는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말을 걸기 때문에 억지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요? 유치원에서는 그 요소들로 어떤 것들을 교육하나요?

-저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도 경험을 한다는 것은 친구들과하고 갈등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배우는 것이고, 나눔에 대한 배움, 친구들과 배우고 지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단체놀이, 협동놀이 위주로 한다면 이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독서(책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것은 책 읽어주는 것인데 독서를 하면서 주인공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대입하며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 5. 아이들이 잘못 했을 때 옳고 그름을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먼저 교사가 아이 행동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지 않음 먼저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이 행동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왜 울었을까?, 물이 왜 옆질러졌을까? 등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 4~5세 아이들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 하면서 이 아이가 스

스로 인지할 수 있게 대화로 푸는 것입니다. 만 3세 아이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때에는 “너가 잘못된거야” 라고 말하기 보단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긍정으로 말해줍니다.

## 6. 평균 아이들에 비해 습득이 느리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습득이 느리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아이의 가정배경을 봐야합니다. 한 부모 가정, 맞벌이, 학대, 정신지체 등 이런 배경을 본다면 아이에게 다가갈 때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됨)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의 행동에 상황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 공격성 빈도수, 장면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교사가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가가고 그렇지 않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면 도움을 청해서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를 당해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

## 7. 미래의 유치원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특성과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적으로 차분한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잘 놀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놀 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놀이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면 선생님이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놀아주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한다거나 문서만 처리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재미없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놀아주겠다 하는 의욕, 아이들과 정말 잘 놀아주는 것, 한 명 한 명 잘 파악할 수 있는 것(관심)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기 : 기본으로 피아노를 잘 치면 좋은데 아이들과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아이들은 피아노 치는 선생님을 보며 신기해하기 때문에 피아노 정도는 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원에 와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 외에 배우고 생각한 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중간에 인터뷰를 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계획이 다 무산되었고 원래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유치원에서도 오프라인 외에 인터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인터뷰 상대를 구하는게 조금 힘들었다. 또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마음가짐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터뷰를 해주시는 상대에 대한 예의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생각하고 긴장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직업의 가치나 특성 등..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지만 심화된 질문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다. 인터뷰 대상이 급하게 바뀌어서 질문도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꽤 순조롭게 잘 이어지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과 예의에 대해 어떤 가짐을,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잘 알게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13

## 문제해결 프로젝트

problem solving 06.07

### 1. 주제

식당 음식물 쓰레기

### 2. 문제 개요

학생들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담아온 음식의 양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반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정작 학생들이 먹어야 할 반찬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또한 친구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간다.

### 3. 의미 있는 청중

드리미 학교 공동체, 지구 환경

### 4.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 음식물 쓰레기 문제 관련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설문지)
-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빈약한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해당 학생들 인터뷰)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 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신 영양사님들의 수고가 무시된다.
-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이유가 필요하다. (설문, 인터뷰 등)

## 5.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환경 부담금내기 (기부금으로) <보류>

-포스터를 제작해서 메일로 보내기

:)포스터 내용 : 1년 식비, 버려지는 음식량, 음식 쓰레기에 의한 피해

-체크리스트 생성(ex스티커, 메일, 종이)

-설문지 만들어서 돌리기

-인터뷰 진행하기

## 6. 문제 해결 방법 정리

-캠페인 진행

-음식물 쓰레기 문제 관련 학생들의 의견, 음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 돌리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다. (스티커)

-포스터를 제작해 벽 곳곳에 붙인다. (메일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7. 액션 플랜

-설문지 만들기 (설문지 질문 내용)

-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아니요/잘 모르겠다

- 음식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아니요/ 잘 모르겠다

- 음식을 남기시나요? 예/아니요

- 음식을 얼마나 남기시나요?

조금 남긴다, 보통 남긴다, 많이 남긴다

- 음식을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답형

- 드리미 학교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 분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기타 의견 및 해결방안을 적어주세요.) ->장문형

**포스터 만들기**- 선양, 범준이는 플랫폼으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 (벽에 부착+ 메일로 보내기), 초윤이는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부착

**체크리스트 생성 (스티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프린트한다. (스티커도 준비), 식당 문 앞쪽에 부착해서 학생들이 다 먹고 난 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 안내한다.

(아래 내용 첨부)

## 8. 역할 분담

설문지 질문 - 다같이  
(위에 있음)

체크리스트- 다같이

음식을 남겼다/ 남기지 않았다

친구들을 배려해서 음식의 양을 조절했다 / 조절하지 않았다

포스터 만들기- 플랫폼(선양, 범준), 그림(초윤)

$\frac{1}{4}$ .과  $\frac{3}{4}$ .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음식량 분배가 되지 않는 것도 포스터 내용에 넣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옆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

통계 - 다같이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통계 결과 - 다같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 의견 설문조사 - 다같이

# 14

## 3P 창의활동 계획서

creative activity 04.01

### 활동명

E.B.F (ECO BABY FASHION)

### 팀원

유초윤

### 개요

이 창의 활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나눔하고 베푼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라고 하셨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난 사람을 도우라는 그 사명을 행하는 활동을 만들어 나간다. 이 활동을 통해서 3~4세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 모자, 손수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요즘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 대량생산하고 유행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는 시스템인 패스트패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버리는 옷도 많고 그로 인해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조금이나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 옷이나 입지 않는 옷으로 리폼하여 아기 옷을 제작한다. 후에 만든 옷을 전달하며 그 옷을 입힌 후 아기 사진도 찍어주고 가족 사진도 찍어주며 추억도 만들어 드리고 행복을 전한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 목적)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행복과 기쁨을 나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베푸라는 명령을 실천하고 옷을 만들어 나누고 더불어 의류로 인한 환경파괴를 조금이나마 막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분들께 사진을 찍어드리고 앨범을 만들어 나눔함으로써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며 나 자신 또한 뿌듯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느낀다.

#### 활동내용)

아기 옷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며 헌옷들을 이용해서 아기 옷을 제작한다. 그 후에 나눔 대상을 정해서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제작한 옷을 가지고 직접 나눔을 하러 간다. 옷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또한 사진촬영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전달한다.

#### 의미 있는 청중

소외계층(한부모 가정,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

### 내용 및 활동

- 1주차에는 **환경**에 대해 공부한다.(의류와 관련된 환경오염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 2~3주차에는 아기 옷 **제작**에 대해 공부하고 연습한다.
- 4주차에는 **나눔 대상** 정한 후 주차에는 **헌옷 고르고, 헌옷 기증**을 받는다.
- 5주차에는 디자인 **선택**을 한다.(색깔, 스타일, 원단, 패턴등)
- 6~7주차에는 디자인 선택을 토대로 옷 **도안**을 그린다.
- 8~11주차에는 도안대로 옷을 **제작**한다.
- 12~14주차에는 옷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진 **촬영**을 한다.
- 15주차에는 앨범 **제작**한 후 전달한다.

### 자료 & 재료

- 영상 자료: Sweetsewing 달콤한바느질 강의
- 도서 :패턴부터 남다른 우리 아이 옷 만들기, 가타카이 유키
- 온라인 자료  
    포토몬 (앨범 만들기)  
    환경 관련 기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